

숨은그림찾기 < 94 >



찾아보세요 송사리, 나비, 열대어, 은행잎, 바늘, 다리미, 팽이, 고추, 뿔

남편이 늦는 이유

매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들어오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양말을 부려 봐도 묵묵부답인 남편, 더 화가 난 아내가 소리쳤다. "당신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3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귀찮은 듯 말했다. "이 시간에 묻는 데가 이 집밖에 없어서 들어온다. 왜!"



지난주 정답

송사리, 서둘 꼭, 병뚜개, 열대어, 담배 피이프, 고추, 제비, 화살, 다리미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김혜선(광주시 남구 주월동) 최준혁(광주시 서구 풍암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성수대교 붕괴...32명 참사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의 순간이었다.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깡'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땅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 차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뒤편을 열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열리지 않았다."

출근길 승용차를 타고 성수대교를 건너다 강에 떨어졌던 한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13년전인 지난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께 서울의 한강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 성수대교 북단 5번과 6번 교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위에 얹혀있던 교각 상판 50m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버스와 승용차 10여대가 함께 강물로 추락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시내버스는 거꾸로 뒤집힌 채 휴지처럼 구겨져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희생자들, 등교하던 학생들의 책가방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성수대교는 1979년 10월 16일 완공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으로 꼽힌다. 동야건설이 공사비 115억8천만원을 들여 지난 1977년 착공, 2년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한 다리로 폭 19.4m, 연장길이 1천160.8m. 최신 공법을 적용, 미관을 고려한 첫 한강다리라는 명성을 얻었던 다리다.

그 다리가, 평균 수명 100년이라는, 최신 공법을 적용해 설계했다는 다리가 고작 15년만에 무너진 것. 이 사고로 모두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많은 희생자들의 사연은 국민들을 울렸다.

성수대교 붕괴는 다리와 함께 온 국민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특히 그 해는 '부실공사 추방 원년', 요란하게 외치던 구호가 완전한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수치심을 느끼면서 허탈해 했다. 조유의 교량붕괴 사고이후 지난 1997년 7월 3일, 성수대교는 재개통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성수대교 붕괴 현장. 무너져내린 성수대교 상판 위에서 바닥과 천장이 닿을 정도로 구겨진 버스가 당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뉴스퀴즈

85.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최근 인간이 이기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와 이 사람을 2007년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엘 고더 ②조지 부시 ③무하미드 유누스 ④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7일 (음 9월 7일 甲申)

- 36년생 생각지도 않은 큰 소비가 생김. 48년생 錦衣夜行 격이니 빛이 나지 않음. 60년생 어려움은 다투어도 지혜는 생겼다. 72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공로가 없어 가슴이 답답. 84년생 자신의 능력을 모함하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9,37
37년생 대장과 인다리에 이상이 있을 수다. 49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 있게 생활. 61년생 결정을 내렸어도 다시한 번 점검. 73년생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영국에 빠짐. 85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 행운의 숫자: 07,29
38년생 새벽부터 서둘러라 급한 일이 생긴다. 50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기대하라. 62년생 부부간에 오해가 생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나 나쁜 일은 없다. 74년생 자신을 모함하는 수하인이 사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15,40
39년생 재물을 나누라. 또다시 모아진다. 51년생 주변인에게 모진 일을 시킬 수도 있으니 삼십적으로 행하라. 63년생 다 된 밤에 재 뿌리는 일 사람을 조심하라. 75년생 한 시가 바쁘니 시간을 아껴 써라. 행운의 숫자: 09,36
40년생 늘 생각하고 있던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2년생 모든 지혜를 총 동원하면 해결된다. 64년생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세겨보라. 76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화는 피하고 득이 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22,27
41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소득은 커지리라. 53년생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65년생 병을 앓을 때 잘자라. 77년생 가능한 한 발표를 하지 않으면 해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02,35
42년생 뜬 구름 잡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 54년생 大難은 없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6년생 구실수에 오르지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78년생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니 쓸 곳은 바로 생긴다. 행운의 숫자: 10,26
43년생 새로운 인생의 준비를 해보라. 55년생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일찍이 소식 온다. 67년생 쉼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니 결과가 반반이다. 79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니 진행을 늦추지 마라. 행운의 숫자: 04,27
44년생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56년생 산 넘어 산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68년생 자신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라. 80년생 시비에 휘말린다. 행운의 숫자: 08,45
45년생 외부는 시끄러워도 내부의 평안하다. 57년생 부부간에 서로 이해와 배려에 노력해야 한다. 69년생 독불장군 없으니 상대방도 존중하면 시비는 없으리라. 81년생 재물이 늘어나지만 먹을 것이 없구나. 행운의 숫자: 05,33
46년생 전쟁은 치열하니 군량미가 없는 한국이니 안락가를 뿐이. 58년생 세상이 급변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다. 70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82년생 상황은 어려워 지지만 마음은 편하다. 행운의 숫자: 13,25
47년생 옛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아라. 59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前途를 살펴가라. 71년생 독불장군 없으니 상대방도 존중하면 시비는 없으리라. 83년생 직장과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온다. 행운의 숫자: 06,26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Go board diagram for a Go match between Kim Hyeon and Seon Gyeong-seong. The board shows stones placed on a 19x19 grid with numbers indicating the order of moves.

광주시 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 관록의 승리 총보(1~237) 최강부 손결승 1국 白 김희관 5단 黑 선계성 6단

이 바둑은 장장 237수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선계성 6단이 왕년의 관록을 유감없이 보여 주면서 김희관 5단에게 통쾌한 불계승을 거두고 결승에 선착했다. 선계성 6단이 오래전부터 이 지역 최강자 중의 한명으로 명성을 떨쳐왔으나 김희관 5단도 연속해서 전국체전의 광주대표로 선발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투쟁을 열어보니 김희관 5단은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선계성 6단의 권도에 끌려다니며 그대로 밀려 버렸다. 초반 흑 21로 져버렸을 때 24에 끊

바둑소식 이세돌, 명인전 2연승

이세돌 9단이 16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결승 5번기 제2국에서 조한승 9단을 212수 끝에 백불계로 꺾었다. 2연승을 거둔 이세돌은 남은 대국에서 1승을 추가할 경우 국내 최대 상금(우승상금 1억원)이 걸린 명인위에 오르게 된다. 명인전까지 점수할 경우 이세돌은 국내의 타이틀 7관왕을 달성한다. 현재 보유중인 타이틀은 도요타텐소배, TV바둑아시아선수권, 물가정보배, 입신최강전, GS칼텍스배 등 6개. 결승 5번기 제3국은 오는 30일 강원랜드에서 열린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 60초 초읽기 3회.

Advertisement for Derma 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굿모닝 잉글리쉬 <1013>

My wife is very sick. 제 부인이 몹시 아프습니다. A: Front desk, What can I do for you? B: My wife is very sick. A: Shall we call a doctor? B: Yes, please. How long must we wait? A: He will be there in a minute. A: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B: 제 부인이 몹시 아프습니다. A: 의사를 불러 드릴까요? B: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금방 올 것입니다. * My husband is ~ : 제 남편이 (~상태)입니다. * in a minute = soon * ill = sick

오하오우 니혼고 <1013>

宝(たから)くじ買(か)いませんか。 복권 안사십니까? A: 年末(ねんまつ)恒例(こうれい)のジャン宝(たから)くじ買(か)いませんか。 B: そんなの買(か)っても当(あた)らないでしょう。 A: でもちょっとすると、3億(おくえん)が当(あた)るかも知(し)れませんよ。 B: うん。まあ、夢(ゆめ)を買(か)うと考(かんが)えればいいんじゃないけどな。 A: 연말 늘 하는 점보 복권 안사요? B: 그런 거 사도 당첨 안돼요. A: 그래도 혹시 3억엔이 당첨될 지도 모르잖아요. B: 음~ 뭐, 희망을 산다고 생각하면 괜찮겠군요. 恒例(こうれい): 황례(하기로 정해져 있는 행사)ジャン宝(たから)くじ: 점보 복권 そんなの: 그런 것 ちょっとすると: 혹시

니하오 쑹구위 <203>

他哪天方便 他哪天方便 그는 언제 시간이 되나요? A: 没有约好。 Méiyǒu yuē hǎo. B: 高先生这个星期很忙。 Gāo xiānshēng zhè ge xīngqī hěn máng. A: 他哪天方便? 您能安排个时间? Tā nǎ tiān fāng biàn? Nín néng bù néng ān pái ge shíjiān? B: 等一下, 星期四下午可以。 Dēng yíxià, xīngqī sì xiàwǔ kěyǐ. A: 약속은 안 했는데요. B: 고 선생님은 이번 주에 매우 바쁠 겁니다. A: 그는 언제 되실까요? 시간을 좀 잡아 주실 수 있으시나요? B: 잠시 만요. 목요일 오후에 가능하십니다. 方便 [fāngbiàn]: 알맞다, 적당하다 安排 [ān pái]: 안배하다, 배치하다

한자 이야기 <630>

鷓鴣狗盜(계명구도) 닭 계, 울 명, 개 구, 훔칠 도 계명구도(鷓鴣狗盜)는 닭 우는 소리를 내고 개 흉내를 내며 도둑질 한다는 뜻이다.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맹상군(孟嘗君)에게는 3천명의 식객(食客)이 있었다. 특이한 재능만 있으면 누구나 받아들여 의식주(衣食住)를 해결 해 주다보니 별의별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맹상군은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부름을 받고 가서 호백구를 선물하였으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바슬은 고사하고 죽임을 당할 지경이었다. 이에 소왕의 애첩에게 풀이줄 것을 부탁하니 그녀는 호백구를 요구하였다. 식객 중 계명으로 도둑질에 능한 사람이 밤에 궁궐 창고에 들어가서 호백구를 찾아가 애첩에게 주니 그녀의 간청으로 맹상군은 석방되었다. 곧 그 곳을 빠져 나와 밤중에 함곡관에 이르니 닭이 울어아 통곡사제 춘다고 하자, 식객 중 한사람이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니 다른 닭들이 따라 울어 관문이 열려 무사히 제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따라서 '계명구도'란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 또는 '하찮은 재주도 귀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의미이지만, 보통은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잔재주를 자랑하거나, 비굴한 꾀로 남을 속이는 천박한 짓을 비유한다.